

Latin America's Perspective of Korea

라틴아메리카의 눈으로 본 한국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¹⁾

하루 코르데로 마르티네스

미래에 어디서 살게 될지 누군가가 어릴 적 내게 물어봤다면 나는 아시아의 어느 나라를 떠올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시아 대륙은 내게 있어 잡히지 않는 꿈과 같았다. 무엇보다도 먼 거리 때문이었다. 나는 고귀하고도 카리스마 있는 인물과 풍요로 가득한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왔다. 우리나라는 도처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늘 기쁨과 행복이 생생히 엿보이는 국가이다. 이토록 경이로운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는 국가이다. 한국에서는 약 15,0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문자 그대로 나는 세상 저 반대편 사람인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일본계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아시아 문화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덕분에 아시아라는 지역에 대해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한국에 와서 살기 전에 휴가차 세 번 한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한국에 반해버렸다. 독특한 문화, 풍부한 예술, 기나긴 역사와 발달된 기술, 경제력에 나는 매료되었다. 이 년 전부터 나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한국에서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들을 겪었다. 게다가 나의 가족이 불어나기도 했다. 남편과 나의 인생에 있어 최대의 축복이었던 첫 아이가 여기서 태어난 것이다. 이에 보태 약 일 년 전 나의 소중한 보물인 여동생까지 한국으로 오게 되

1) 이 글의 원문(La magia de Corea- Un lugar al que nunca pensé llamar mi hogar)은 90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편집자.



서울대공원 (출처:<http://grandpark.seoul.go.kr>)

었다.

우리 가족에게 문을 열어 준 한국은 셀 수 없는 기회와 경험, 친구를 선사해준 마법의 나라이다. 덕분에 이제 한국은 나의 집이 되었고, 그로인해 나는 한국의 장점을 충실히 선전하는 홍보담당이 되기도 했다.

한국은 유서가 깊고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기술적인 발전과 근대화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수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이 지닌 여러 매력 중 내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다. 대도시의 분주한 삶은 전통을 간직한 장소들에서 보이는 고요와 평온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에 더해 한국은 외국인에게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강한 국가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어른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한국인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또 다른 장점은 서울과 그 근교의 교통 시스템이다. 특히 지하철 노선이 보기 드물 정도로 먼 곳까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관광객은 쉽게 도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많은 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다. 게다가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잘 정돈되어 있으며,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기도 하다. 한국의 음식은 라틴아메리카의 음식과는 매우 다르지만, 재료, 식감, 향기, 맛이 모든 면에서 독특하다. 또한 영양이 풍부해 칼로리가 낮은 식단을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건강과 몸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장점이 된다. 진정 한국의 식문화는 내게 있어 값진



서울대공원 코끼리 (출처: 필자)

경험이었다.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관광지 외에도 문화 활동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이 나라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다. 취향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간에 서울에서는 각자에 알맞은 활동을 찾을 수 있다. 세계 5위의 높이로 최근에 개장한 롯데월드타워, 고궁과 전통 시장, 역사박물관과 현대미술관, 쇼핑센터, 백화점, 자연 공원과 유원지, 사찰, 다양한 종류의 레스토랑과 카페 등 서울 안에서도 여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주말에는 콘서트, 연극에서부터 음식, 옷, 수공예품 등을 파는 노천 시장까지 선택지가 더 다양화된다. 내가 한국에서 가장 즐기고 있는 문화생활 중 하나가 카페이다. 한국에서는 어디든 모퉁이만 돌면 카페가 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카페도 많다. 어린이들이 놀고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조성된 카페가 있는가하면, 테마카페도 존재한다. 특히 놀라웠던 곳은 고양이, 개, 양, 심지어 너구리와 같은 동물과 교감할 수 있도록 만든 카페였다.

서울에서 동물을 본다면 최근에 남편이랑 아들과 함께 놀러갔던 서울동물원을 추천하고 싶다. 동물 또는 자연과의 접촉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서울동물원은 한국에서 제일 큰 동물원으로 서울대공원 단지에 포함되어 있다. 3,700마리나 되는 330종의 동물이 있으며,

면적이 2,420평방킬로미터나 되어 전체를 둘러보려면 하루 온종일이 소요된다.

이곳을 가기엔 지하철이 편리하다. 하지만 승용차로 가고자 한다면 매우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가족은 지하철을 이용했다. 4호선 하행선을 타고 서울대공원역에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된다. 매표소는 5~10분 정도 직진하면 찾을 수 있다. 서울대공원 내에는 방문객이 관람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배가 고프다면 여러 종류의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도 있다. 물론 식당이나 편의점도 이용할 수 있다.

매표소에는 입장권과 함께 동물원까지 운행하는 코끼리 모양의 기차 티켓을 판다. 물론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이지만, 여름과 같이 더운 계절에는 꽤 지칠만하기에 이용할만하다. 동물원 내에 있는 케이블카 티켓도 함께 살 수 있다.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라 우리 가족은 이 티켓을 한꺼번에 다 구입했다. 후회하지 않을 만한 결정이었다.

코끼리 기차는 매우 좋았다. 기차에서 내다본 풍경이 아름답고도 포근했다. 우리는 동물원 입구에 도착해 동물원 끝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로 갈아탔다. 동물원이 산길을 따라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관람하도록 케이블카를 타는 편이 더 나아보였다. 아니면 반대로 동물원의 끝까지 걸어 올라가 입구로 내려오는 케이블카를 탈 수도 있다. 케이블카를 탄 덕택에 우리 가족은 공원 내 시설과 아름다운 녹지를 즐겁게 관람하고, 동물원이 얼마나 크고 잘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케이블카는 약 15분가량 소요된다. 넓은 공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소에서 동물원 지도를 구하길 추천한다.

케이블카에서 내리고 난 후 늑대, 호랑이, 곰에서부터 동물원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잘 관리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특히 좋았던 것은 동물들에게 각자의 서식지와 유사한 시설을 만들어 줌으로써 동물이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한 동물원 측의 배려였다. 우리가 동물원을 찾은 날은 안타깝게도 동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수백 종의 동물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훑어보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기 마련이다. 우리는 큰물새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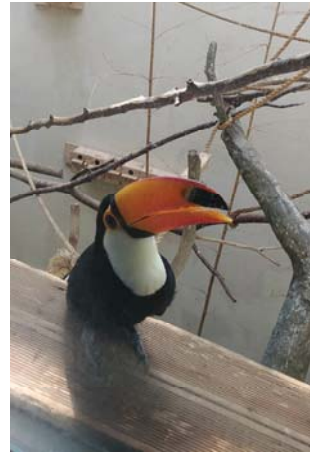
서울대공원 (출처: 필자)

도착했다. 큰물새장은 큰물새의 종류와 개체수도 많지만 새장의 크기도 놀라운 수준이다. 조류사에서는 여러 종류의 조류를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동물원 입구에도 조류 중 몇 마리를 같이 사진을 찍도록 풀어놓은 구역이 있었다. 우리는 너무 사진과 같이 완벽해서 마치 인형 같던 투칸도 봤다. 조류사의 막바지에는 관람객이 새와 교감하도록 다수의 앵무새와 작은 새를 풀어둔 공간도 있었다. 아름다운 체험이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원숭이, 사슴, 산양, 버팔로, 낙타, 캥거루, 코끼리, 물개, 하마, 기린과 같은 동물을 봤다. 코끼리 우리를 지날 때는 아기 코끼리가 노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재밌게도 동물원에 처음 온 아들은 코끼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동물원의 아기코끼리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우리 안에 있는 호수에 빠지는 바람에 엄마 코끼리가 다른 코끼리들과 힘을 합쳐 새끼를 구해내는 장면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었다. 코끼리들 사이의 팀워크의 일례를 보여준 것이다.

요즘은 돌고래 우리가 단혀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돌고래를 바다에 방생했다고 한다. 이 동물원은 후세대를 위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포함해 여러 가치 있는 동물들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열의를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물원에는 동물 조각상이 즐비한 구역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게 조성된 아름다운 정원도 있다.

동물원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깨끗한 화장실과 편의점, 한국 음식을 파는 노점, 쉼터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잠시 앉아 수려한 자연 경관 속 고요함을 느끼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들도 여기저기에 마련되어 있었다. 동물원을 통과해 흐르는 강가에 앉아 피크닉을 할 수도 있었다. 물론 여름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 서울대공원을 거닐기 힘들다. 내 생각엔 봄이나 가을이 이곳을 찾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다.



동물원의 마지막 구역에서 우리 가족은 아름다운 색깔과 늘씬한 몸매로 시선을 끄는 플라밍고를 보고 출구를 나섰다. 그 후에는 입구까지 돌아오는 기차를 탔다. 다들 너무 지쳐버렸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고, 기차 티켓이 비싸질 않아 그 편이 나왔다. 돌아오는 기차는 아이와 어른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울랜드라는 놀이공원에서 정차했다. 우리는 다음번엔 서울랜드를 가보자고 이야기했다. 서울대공원은 볼거리가 매우 다양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 외에도 장미원과 어린이동물원으로 잘 알려진 테마공원도 있다. 특히 어린이동물원은 아이들에 맞춰 구성되어 여러 동물들을 만져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숭이, 토끼, 사슴, 양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서울국립현대미술관, 캠핑장, 산책로와 피크닉을 할 수 있는 잔디밭 등이 공원 내에 들어와 있어서, 친구, 연인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도 하다. 이 날은 진정으로 내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해주었다. 우리는 서울대공원의 모든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또 한 번 시간을 내리라 생각했다. 틀림없이 시간이 아까울 일은 없을 것이다.

[정민정 옮김]

하루 코르데로 마르티네스 — 프리랜서
정민정 —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